아모레퍼시픽의 이슈물질 관리

아모레퍼시픽은 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법적 규제 대상인 배합금지 물질 및 배합한도 물질에 대한 법적 기준을 지키고 있으며, 일부 원료에 대해서는 내부 관리 규격 설정을 통해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1. 1,4- 다이옥산

1,4-다이옥산은 일부 계면활성제의 합성 과정에서 발견될 수 있는 불순물로서, 유럽, 미국, 일본 등의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원료로서 사용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장품에서의 불순물에 대해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우리나라 식약청에서도 안전성을 평가하여 100ppm 이하의 화장품 불순물에 대해서는 안전함을 입증하였으며, 이것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에서는 원료에서부터 다이옥산의 양을 최소한으로 저감화 노력을 하고 있으며, 법규 준수뿐만 아니라 잔류 가능성이 있는 원료에 대해 법보다 더욱 엄격한 내부 안전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고객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 프탈레이트

화장품 내 프탈레이트가 검출되는 경우는 두 가지 입니다. 매니큐어의 발림성을 좋게 하기 위해 매니큐어에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와 화장품의 플라스틱 용기 제조 시 사용되어 화장품에 의도하지 않게 미량 용출되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와 유럽에서는 안전성 평가 후 제품 내 프탈레이트의 총 양이 100ppm 이하이면 안전하다고 평가하여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법적으로 프탈레이트류 중 DEHP, DBP, BBP1 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화장품 원료로서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저희 아모레퍼시픽은 프탈레이트를 원료로서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용기 선택에 있어서도 내부 안전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3. 파라벤

파라벤은 보존제로서 오래도록 사용되어 왔고, 현재도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파라벤은 부틸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이소프로필파라벤, 메칠파라벤, 에틸파라벤이 사용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파라벤은 국내 법규뿐만 아니라 유럽 법에서도 단일 사용을 최대 0.4%, 혼합으로 최대 0.8%까지는 안전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레퍼시픽에서는 고객님께서 더욱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하시도록, 파라벤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보존제로 대체하거나, 보존제를 처방하지 않은 제품도 늘리고 있으며, 제품 사용 중 미생물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용기의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